

# 용광로에 다 넣어야 녹으니까 내 용광로에 다 놓아라

## 25면에서 계속

로 그 안에 있으니 소를 쳐야지 내 몸뚱이 이것이 나라고 하면서 나를 자꾸 볶아 대면 달구지가 망가진다 이 소리죠.

그냥 대중대중 이력하다 보니까 좀 그렇군요. 아가 짙에 들어갔던 사람 얘기로 넘어갑시다.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은사 스님께서 “애야! 저기 흘러가는 물 좀 봐라. 물이 틀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이 틀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 공양 짓고 나무 해오고 앉고 서고 눕고 하는 게 모두 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세 가지들 물었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대답도 못하고 있다가 “틀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것이냐?” 하니깐 아무 소리도 않고 일어나서 삼배를 올리고 딱! 딱! 딱! 손뼉을 세 번을 치더니만 딱 꿇고 앉았거든요. “인제는 그 사슴이 누군 줄 알았느냐?” “예, 전자의 제 어머니님이 제 형님 두 분입니다.” 하고선 눈물을 툭툭 흘리며 “제가 이렇게 어머니인 줄 알고 형님인 줄 알았지만 형님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절을 짓고 수행하면서 조상들의 마음을 돌 아니게 한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 대대로 모든 분들이 산골에서 쪽 아무것도 모르고 그 많은 짐승들을 살생하고 내려왔는데, 그것을 한마음으로 놓으면 할아버지의 마음도 내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도 내 마음이고 형제들의 마음도 내 마음인 그 마음은 내가 없으니 내 목한 그릇에다 물방울을 수만 개를 넣을수록 어찌 한 그릇이 아니오리까. 그러나 이것을 이름 해서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하더라.

그래서 그 스님은 거기에서 절을 짓고 사시다가 일본 사람들이 침략했을 때에도 나라를 위하여 많이 거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뭐 이름을 대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이름은 있어버렸거든요. 또, (대중 웃음)

그러니 여러분도 가정을 이루고 나가는데 항상 평등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웃음으로 대해 주고, 생활 속에서 어떠한 고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야, 이놈의 새끼야. 뭐, 어찌고...” 이러면서 욕하지 마세요. 한생각이 그렇게 무서워서, 모진 욕 한마디가 개한테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긴들 좋겠습니까? 또 남편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오래 살 겁니까? 한 철인데, 욕을 먹든 때를 맞든 뭐 나가서 바람을 피우든 어떻게 하든 말이예요. 사랑을 한다면 다 쥐 버리지 그깟 놈의 거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더러더러 속 썩는 분들도 있기에 내 이런 소리 합니다. 그것을 다 놓고, 들어오면 따뜻한게 웃으면서 대해 주고 속은 상하더라도 속상한 건 주인공한테 맡겨 놓고 ‘당신만이 저 사람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믿고 거기 놓을 때에 그 주

인공하고 내 주인공하고 틀이 아니거든요.

‘내 주인공과 틀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공은 그 사람을 잘 끌고 다닐 거다.’ 하는 것을 믿고 맡겨 놓을 때 그대로 되죠. 그러고선 좋은 말 해주고요. 아주 속상하고 꼴 보기 싫더라도 그래도 그런가요? 사랑한다면 뇌 주고 좋은 말 해주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줘야죠.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대해 준다면 그곳으로 고이게 마련이고 여름에 더울 때는 그 자리를 시원하게 해 준다면 바로 시원한 데로 앉을 것이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회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진짜 사랑을 한다면 모두 다 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울지안정 그 사람을 울리지 않고, 내가 죽을지안정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내가 괴로

췌요? 편안하게 살게 사세요. 여기 온양에도 그렇게 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눈 팔더라도 “여보, 인간으로 태어나서 당신이나 나나 뭐 그렇게 저저 했다고, 나가서 맛있는 거 잡술포고 그저 마음 편안하게 살의 보람을 좀 잡시라도 느껴 보시오.” 이라고선 딱 쥐 버리고 나는 편안하게 있으면 좀 좋겠습니까. 조용하게 말이에요. 외려 그냥 졸졸이 붙어 있는 거 다 떼버리고 편안하게 조용한 데 앉아 있으면 그 참,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아, 여러분은 붙어 있는 것만 좋은 줄 알지만 딱 떨어지고선 훨훨 날아다닐 때가 여간 좋지 않아요. 이 집 저 집 쳐다보면 집집마다 불빛이 찬란하게 그냥 별빛처럼 나오고 별빛 등처럼 불이 비치는데, 아

고 나오고 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 탓이 아니거든요. 자기 탓입니다. 모두, 남을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온양에서도 이 공부를 안양에서 하는 대로 항상 같이 해 나가도록 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잘한다면 어떻게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못났다면 어떻게 잘났다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 있습니까. 내가 올바르게 진실하게 남을 해하지 않고 그저 웃고 부드러운 말 해 가면서, 어떠한 길을 걸든지 두뼉뼉 그냥 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내 마음이 부처면 남도 부처로 볼 수 있지만 내 마음이 마구기라면 남을 마구기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제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 이 온양에 있는 여러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내 몸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식들에게 햇빛을 줄 수 있고 부모에게는 목은

가만히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부처님이지 뭐 다른 건가요? 우리 스님네들 여기 부처님들 죽었다 게 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도 법신이 될 수 있고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하고요. 그 마음이 부처지 보살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며칠 깎아어만 많은 중생들을 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보살로 계시다가 요다음에 대통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장관으로도 나와서 건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수없이 그런 인연들을 타고 나고 그런 게 자기한테 주어지죠. 배우라고 한다면 그런 역을 맡아 가지고 나오죠. 우리도 배우자 부처이자 보살이니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다 지금 배우자 이러한 역을 맡아 가지고 나와서 지금 이 역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역을 맡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오늘은 너무나 끔찍하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오늘 여러분한테 당부드린 말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그 씨는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씨가 있기 때문에 레이더망이나 무전통신기나 망원경이나 탐지기나 컴퓨터나 팩스나 그런 것이 다 곁에서 거기 진실로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이걸 자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자동적으로, 거기에 입력을 누가 해라 말아라 할 거 없이 용도에 따라서 나한테 딱치는 대로 입력을 할 수 있는 자유적인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건으로 따진다면 저런 물질적인 문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를 다 돈 들여서 설치해 해야 하고, 아니, 하고 싶어도 아파 돈이 들어서 못할 겁니까? 아니, 한계가 있어요. 입력을 해 놓어도,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없고 무한량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공부들 안 하시겠습니까? 모두 밥 한 그릇 놓고 먹 한 그릇 놓고 빌면서 나 좀 살려 달라고 그러다가 요다음에 또 나 살려 달라고 할 테니 그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깊이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음성공양이 끝나고)  
여러분! 나뵈는 말 아십니까? 나뵈는 거 말입니다. 나뵈는 거 말 모르면 이해가 안됩니다. 나뵈는 거는, 여러분이 자식을 만났다가 금방 남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식을 만났을 때는 엄마가 됐죠. 그랬는데 금방 애는 비켜나고 남편이 들어왔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아내가 된 거예요. 아내가 돼서 말도 아내의 말이 나가고 또는 행동 그렇게 나오고 뜻도 그렇게 가지게 되죠. 그거를 한 찰나의 나뵈이라고 그러합니다. 바뀌서 돌아가는 거 말입니다.

\*위 법문은 1990년 3월 15일 국내자원위원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붙어 있는 것만 좋은 줄 알지만 탁 떨어버리고선 훨훨 날아다닐 때가 여간 좋지 않아요!

울지안정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그것이 진짜 자비요 사랑입니다. 입 안에 붙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금방 만나면 “야! 너, 너 사랑해! 사랑해!” 하다가 금방 며칠 안 가면 싸움을 하고 그냥 “야, 이 새끼야! 너하고 나하고 언제 적에 뭐 어찌고 어찌고...” 싸우곤 그냥 각 방을 쓰고 온통 야단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깨비장난을 하는 거지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은 자식이 물에 빠졌을 때 아무 조건도 없이 건지려고 뛰어드는 부모의 마음 같은 거죠. 그런 마음이 자비예요.

그래서 때로는 심곳이 웃기도 하고 때로는 잠, 빠져서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다 쥐 버리면 그뿐인 것을 뭐 때문에 이렇게 울고 저렇게 애만 지만 끈적끈적하게 애를 쓰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냥 ‘똥난이끼리, 너나 나나 못나서 그러니까 다 그냥 없애졌으면 좋겠다.’ 하고 옛날에 생각도 해 봤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없애야 되는 거는 바로 마음이지. 그 요동치는 마음을 없애고 딱 뇌 버리는 거예요. 이까짓 몸뚱이, 이까짓 고깃덩어리 한 켜 사는 거,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듯 하는 거, 그거 가지고 한 철을 울고불고 애를

주 순탄하게 다 좋은 거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그냥 머리끄덩이 붙들려서 이리 박히고 저리 박히고 그러질 않나, 사람이 죽었다고 울지를 않나, 온통 사랑한다고 끝어안고 야단들을 하지 않나, 온통 그제 도대체, 그냥 시들부들 시들부들 도대체 그게... 이게 감이 잡히질 않아요?

공부를 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다 하고 보니까, ‘다’라고 한다면 틀렸지요. 그래서 ‘다’ 하고 보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다 하고 보니까 공부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고 그렇게 도깨비장난 같더라 이거지요. 뭐 별로예요, 그냥, 그냥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지요.’

사랑을 하려면 진짜 해야죠,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 말고요. 우리 본원의 어느 신도님 동생도 그렇게 해서 다독겨왔더니 지금은 사랑을 그냥 너무 자비스럽게 해요. ‘그렇게 내가 왜 그랬던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의 탓이 아니라 자기 각각의 업보니까요. 업입니다. 자기가 전자에 부인을 그렇게 속을 썩이고 울렸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안

빛을 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그칩니다.

저 부처님 상(像)이 내 상이요 내 상이 부처님 상인데, 여러분과 또 똑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글썽 눈이 짓눌려서 눈앞이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놔어요. 이런 발칙한 사람들이 어땠어요, 세상에? 이거 다시 만들어요, 다시! 안을 지우고서 다시 금침을 하고 다시 좀 이렇게 딱 짝이 놓기만 하면 아주 눈이 정상적으로 잠, 빛이 나고 좋을 겁니다. 그래서 속도 넣고 말입니다. 그제 첫째, 속이 제일 이지만 겉도 저렇게 만들어 놔선 안 돼요. 그래도 부처님 상인데요.

여러분이 처음에 공부할 땐 저것도 다 그냥 집어 먹어 없애고, 그렇게 공부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나올 때는 다 부처 아닌 게 없어요. 거기까지... 다 버릴 땐 다 버리고 부처까지도 버려야 되거든요. 바깥에 버려라는 게 아니에요. 용광로에 다 넣어야 녹으니까 내 용광로에 다 놓아라 이거지요. 바깥에 버리면 또 녹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참는 것이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맡겨 놔요, 믿고. 그러면 요다음에 내 몸뚱이도 버릴 게 없고 내 몸뚱이 부처도 부처라는 거, 즉 말하자면

### 정도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본 정도불교법사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교의식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교육안내**
  - ◆개강일자 : 2008년 4월 7일 (월) 오후 3시(목탁 치침)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테이프 우송)
- 교육내용**
  - (1)승주편 (도량서, 조, 서, 종성)
  - (2)예경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 (3)한공편 (삼보통칭, 중단퇴공, 불공시식, 지장, 관음, 신중청 등)
  - (4)제익시편 (천도제, 49제,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 (5)시식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등)
- 교육기간 : 단기 속성 3개월 과정**
- 신청방법 : 전화접수**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수강신청서, 사진**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의식방법을 현장실습 위주로 집중 지도함.
  - 의식 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정도불교법사대학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403-15 (3F)  
TEL 02)720-1836, 733-1959

### 사단법인 대한호국 불교 소림선종 입종안내

달마조사께서 주시 하셨던 중국 송산소림사의 달마조사 33대제자 석연선방장 큰 스님으로부터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총무원장 덕산 석연화 큰 스님과 10여명의 소림선종의 스님들이 달마조사 34대제자로 중국 송산소림사 큰 법당에서 소림 1600년사에서 외국스님들에게는 최초로 금년 1월 23일 수계법회가 여법히 거행되었음을 중국언론에서 특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로 중국 송산소림사 석연선방장 일행 23명의 소림스님들이 서울 인사동 소재 중국 송산소림사 한국문화원본부 현판식 참석 및 소림무술 공연 행사를 (2월 18일-2월 21일) 서울 신촌 봉원사와 원주 소림선종 본찰 용화사, 부산 해동용궁사에서 거행하였고 그리고 본 종단의 속인 사업인 소림승가대학과 소림중앙선원 소림무술학교 건립불사를 시행하여 본 종단의 면모를 여법히 갖추고자 합니다. 이에 때를 같이하여 뜻을 함께하실 대덕스님과 중도 및 행자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국소림사에서 달마조사의 제자로 수 · 도계첩 수여(입종비:15만원)
- ◆입종시 :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부여
- ◆입종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승려증서본 2통, 이력서 1통, 여권사진 5매

### 소림문화원 개인에 따른 수강생 모집 (개강일 4월 1일)

- 명상수행 : 새벽반, 오후반(무료)
- 서화(동양화) : 주 3회 2시간 청국 이한동선생(3개월 10만원)
- 서예 : 주 3회 2시간 석천 김가섭선생
- 소림무술 : 소림무술스님 : 석연체스님, 석연탁스님(소림사 석연선방장님제자), 스님 무료(입종스님에 한함)
- 대상 : 스님, 일반인, 학생

### 중국 송산 소림사 한국문화원

소림선종 총무원 :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 170번지 동일빌딩 6층  
전화 02)720-6363 / 팩스 02)720-6340 / 담담 010-6438-3561  
인터넷 동영상 : (아후) 연합불교방송

### VIP 여행사

불교성지 순례상품

- [불교성지순례]
  - ▶분수도량 : 오대산 순례 + 북경(5박 6일) ₩ 990,000
  - [불교성지순례]
    - ▶지장도량 : 구화산 + 황산 / 상해 / 항주 / 소주(5박 6일) ₩ 890,000
    - [불교성지순례]
      - ▶지장도량 :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순례 + 황산(7박 8일) ₩ 1,090,000
      - [불교성지순례]
        - ▶미안파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순례(5박 6일) ₩ 1,500,000

HANATOUR

### 불교성지순례전문여행사

(주)VIP여행사 | 진주시 신안동 8-10번지  
신안동 : ☎ 055)743-5001 / Fax 055)743-5003  
E-마트 : ☎ 055)741-9999 / Fax 055)742-4444

###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한 불전함

움직이거나  
덜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록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